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1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년 예산에 포함된 리무진 및 대형 승용차 종합 안전 개정안 발표

해당 개정안, 승객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2018 년 쇼하리 카운티에서 일어난 끔찍한 확장 개조 리무진 관련 사고 후 개선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 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될 리무진 및 대형 승용차 종합 안전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 년 쇼하리 카운티에서 일어난 끔찍한 확장 개조 리무진 관련 사고 이후, 주지사는 필수 안전법 개정안을 제정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뉴욕주의 근저까지 충격을 준 끔찍한 비극입니다. 뉴욕주는 도로 위에서 위험한 차량을 즉시 몰아내고 부도덕한 사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뉴욕주 전역의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적극적인 신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승객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 재개조 리무진 등록을 전면 금지하여 뉴욕주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함.
- 8 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장애인 지원 영리용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을 요구.
- 차량을 재점검하여 DOT 가 직접 스티커를 제거한 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DOT 검사관이 부착한 서비스 불가 스티커를 직접 제거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룸. DOT 운영 허가가 정지된 채로 운행하여 적발되거나, 해당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운전자가 중범죄로 기소당하는 경우 위반 건당 민사 벌금을 최대 25,000 달러로 상향 조정.
- 공공 보건, 안전 및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DOT 감독관이 해당 차량 운행 허가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등록 정지 및 차량 압수 강화 권한 수립.
- 운행 중지된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는 DOT 및 DMV 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승인.
- 차주 및 운전자가 연방 차량 안전 기준 태그 및 차량 검사 스티커를 조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룸.

- 중범죄자 및 다중 법률 위반자 차량의 민사상 몰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 보관소 확보.
- 차량이 비인가 검사를 받았을 경우 DMV 검사소에 의무적으로 보고 요구.
- 차량 검사 스티커를 불법 발행하는 DMV 규제 검사소를 형사처벌하는 새 규정 수립.
- 뉴욕주 내 모든 도로에서 대형 차량 U 턴 금지.
- 리무진, 버스, 택시, 렌터카 스쿨버스의 안전벨트 요건 예외 삭제.
-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검사당 DOT 검사 수수료 120 달러 부과.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